

대학에 바란다

윤정일 |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그동안 대학입시정책은 고교교육을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전락시키고, 과열과외를 부추기면서 사교육비를 증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대학입시제도와 정책이 선진국형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고교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음은 물론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필자는 대학에서 교육행정학, 교육재정학, 교육경제학을 강의하고 관련분야를 연구하였으며, 대학입시 개선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여 1년 반 동안 학교를 운영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은 대학입시정책이 고등학교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학이 어떠한 방법과 입시전형 요소를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의 교육 방향, 교육내용과 방법이 달라지고 있다. 이는 보다 많은 학생을 좀 더 우수한 대학에 진학시키려고 하는 고

교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입시정책이 고교교육을 비정상화시키고 사설학원의 존도를 높인다면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지금까지 대학입시가 고교교육을 입시 위주의 교육을 지향하도록 하면서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보면 대학에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부여하지 않고 국가에서 대학입시정책을 수립하고 관장해왔기 때문이다. 각 대학이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가지고 입시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개선할 수 있었다면 우리 대학들은 이미 선진국형의 학생선발 방법을 개발하여 정착시켰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일부 대학들이 학생선발에 있어 부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전체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박탈하고 국가주도의 입시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것이다. 그 결과로 대학들은 독창적이고 발전된 입시제도를 연구·개발하지 못하고 주지교과 위주로 학생을 선발해온 것이다.

최근에 각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여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족사관고등학교는 1996년에 개교한 이후 현재까지 학생선발에서 입학사정관제 형태의 제도를 운영해왔다. 서류전형, 전문성 및 인성면접, 영재판별검사, 체력검사 등을 실시하고, 총점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지원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입학전형 자료를 놓고 입시사정회의에서 집중적인 토론을 하면서 합격·불합격을 판정해왔다. 예를 들면, 내신성적이 우수하다고 무조건 합격을 시키거나, TOEFL 점수가 만점이라고 합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인성, 지도성, 학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격·불합격을 판정하고 있다. 대학의 입학사정관에 의한 학생선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입학사정관 개인이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판정하기보다는 입학사정관회의에서 집단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해야 할 것이다. 지원자의 입학전형 자료를 평가기준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선발의 신뢰성, 타당성,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입시에서 고교교육의 특성화, 다양화를 인정하고 조장한다는 의미에서 각 고등학교 교육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고교평준화정책 때문에 고등학교가 독자적인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획일화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영재고,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자율학교 등 각 학교의 특성을 유지·발전시키고 노력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고교별 특성을 대학입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사교육비를 절감시키

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믿는다.

외국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내신성적이나 수능성적에 연연하여 무한 학력경쟁을 하지 않고, 사회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창의적 활동, 예·체능 활동 등을 열심히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왜 선진국의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학들이 공부만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사회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창의적 활동 등을 중시하는지를 유념해야 한다. 사회지도자가 구비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그 조건을 충족한 학생들을 선발해야 할 것이다. 공부만 잘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대학이 어떤 학생을 선발하느냐에 따라서 고교교육은 정상화될 수도 있고, 입시 위주의 파행교육으로 갈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학력 무한경쟁을 위한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대학입시제도와 정책이 하루속히 정착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

필 / 자 / 소 / 개

윤정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대학원에서 교육재정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일리노이대학 교수,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교수 및 사범대학 학장, 대통령교육개혁심의회 상임전문위원, 대통령교육정책자문회의 상임전문위원,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한국교육학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교육행정학 원론”, “교육재정학 원론”, “신교육의 이해” 등이 있으며, “학원수강료 조정기준 및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정책 사례분석 연구” 외 다수가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교육재정 및 경제, 장기교육발전 계획 등이다.